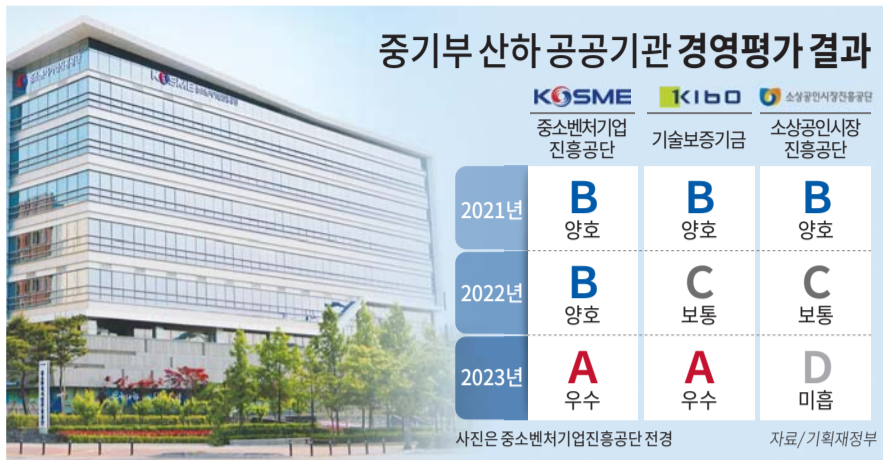


“가득이나 연봉도 적은데”... 경영평가 나빠 성과급도 남의 일

중기부 산하 ‘부익부 빈익빈’ 심화
기보·중진공, 직원연봉 8000만원 ↑
‘우수’ 등급, 직원들 성과급 80%
소진공, 평균연봉 5000만원 수준
‘미흡’ 받아 올해 성과급은 ‘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기관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특히 살림살이가 넉넉치 않은 기관이 기획재정부의 이번 평가에서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그나마 기대했던 성과급도 바라볼 수 없게 됐다.

24일 기재부, 중기부, 각 기관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2023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이 ‘우수(A)’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미흡(D)’을 각각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가장 높은 탁월(S)부터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까지 총 6단계로 등급을 매긴다.

지난 2021년도 평가에선 중진공, 기보, 소진공 모두 ‘양호(B)’를 받았다. 이듬해인 2022년도엔 중진공이 ‘양호

(B)’, 기보와 소진공이 각각 ‘보통(C)’이었다.

전년 대비 2023년도 평가에서 중진공은 한 단계, 기보는 두 단계 등급이 오른 반면, 소진공은 오히려 한 단계 하락하며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 모습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중진공 임직원 모두가 합심해 만들어낸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과 민간주도 성장기반을 마련해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이같은 여세를 몰아 올해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 혁신 ▲민간주도 혁신성장 기반 사업 혁신 ▲고객중심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중

심으로 한 ‘3대 혁신방안’을 적극 추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영평가는 기관에겐 사활이 걸린 문제다. 기관장이 좀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인 평가위원들에게 어떤식으로든 호소하는 게 아재, 오늘이 일이 아니다.

특히 평가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성과급은 공공기관에 다니는 임직원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꼽힌다. 임원들은 더욱 그렇다.

중진공, 기보, 소진공과 같은 준정부 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상임이사·감사는 등급에 따라 기본연봉 대비 60~0%까지 성과급이 돌아간다. 이번에 ‘A(우수)’ 등급을 받은 중진공과 기보 이사장

은 기본연봉의 48%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다. 이들 기관 직원에겐 월기본급의 80%가 성과급으로 주어진다.

기보 관계자는 “전년에 비해 두 계단 올라간 것에 대해선 내부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성과평가실을 중심으로 조용히 자축하고 넘어가자는 분위기”라고 귀뜸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과 달리 ‘D(미흡)’를 받은 소진공은 올해 경영평가 성과급이 없다. D와 가장 낮은 E등급은 지급률이 ‘제로(zero)’이기 때문이다.

전년도에 ‘보통(C)’을 받았던 소진공은 지난해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이사장에게는 약 4400만원이, 직원들에게는 1인당 평균 96만원이 돌아갔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소상공인 지원’ 역할을 톡톡히 한 소진공은 중기부 산하 11개 기관 중 연봉 등 처우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 꼽힌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소진공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5121만원으로, 기보(9371만원)의 54.6%, 중진공(8419만원)의 60.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소진공 입장에서 가득이나 연봉도 낮는데 경영평가도 좋지 않은 결과를 받

아든 것이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소진공의 열악한 현실이 조명되면서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급히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진공 관계자는 “경영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고 내부에서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면밀한 원인 분석 등을 통해 기관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 있는 소진공은 지난 주말 중구에 있던 본부를 유성구 지족동 KB국민은행 콜센터 건물로 옮기고 이번주부터 새 터전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기존에 있던 낡은 건물을 떠나 임직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고, 이전을 통해 아낀 경비를 직원 복지 향상에 쓰겠다는 원대한 목표에서 단행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은 소진공이 원도심을 등지고 떠난다며 ‘몽니’를 부리기도 했다.

한편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감사 직무수행실적도 함께 평가한 결과 기보는 ‘우수(A)’를 받은 반면 중진공은 ‘미흡(D)’에 그쳤다. 소진공은 해당사항이 없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물류 혁신기술 교류 나서

제8회 TES 글로벌 워크숍
4개국 계열사 임직원 145명 화상회의

CJ대한통운이 글로벌 계열사들과 물류 혁신기술 교류에 나섰다.

CJ대한통운은 첨단 물류 기술 기반의 글로벌 성장 가속화를 위한 제8회 TES 글로벌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CJ대한통운 본사를 비롯해 CJ 로지스틱스 아메리카(미국), CJ 다슬(인도), CJ제마텍(베트남), CJ센추리(말레이시아) 4곳의 글로벌 계열사 임직원 145명이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했다.

TES 글로벌 워크숍은 TES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국내 본사의 선진 물류기술을 해외 법인에 전파하고 글로벌 계열사 간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TES 마스터플랜은 CJ대한통운의 기술(Technology), 엔지니어링(Engineering), 시스템 및 솔루션(System&Solution)을 기반으로 자동



CJ대한통운 임직원들이 글로벌 계열사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제8회 TES 글로벌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CJ대한통운

화, 최적화, 지능화를 위해 설계한 중앙기 로드맵이다.

이번 워크숍에선 특히 해외 주도 프로젝트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법인은 콜드체인으로 영역을 확장한 새로운 창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 AI 기반 디바이스로 작업자가 피킹할 제품의 위치를 쉽게 파악해 시간과 비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AI

비주얼 피킹 솔루션을 소개했다.

인도에선 1200개 이상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시나리오화한 수송관리시스템 2.0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CJ다슬은 인도 1위 수송 기업으로, 배차, 차량 관리 등 수송 관련 다양한 기능을 모듈화해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현지 인력과 협업해 기술을 지속 개발함으로써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새만금 개발사업 팔 걸었다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업무협약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북 새만금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기중앙회는 24일 오전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BS산업과 함께 ‘새만금 개발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김만겸 BS산업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전북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및 중소기업계 참여(중기중앙회)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전북도 및 군산시)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 추진 제반사항 이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천(BS산업) 등이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김승호 기자

R&D 우수 중소기업 규제혁신 방안 논의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대전 제조기업 리베스트 방문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연구개발(R&D) 우수 중소기업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혁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보는 김 이사장이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24일 유성구에 있는 플렉시블 배터리 제조기업인 리베스트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베스트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연구개발부터 설계·제조 및 품질관리까지 가능한 R&D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CES 혁신상을 수상하고 중소기업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대표기업에 선정되는 등 플렉시블 배터리 제조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김승호 기자



김종호 기보 이사장(왼쪽)이 김주성 리베스트 대표와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보

중견-중소기업간 상생형 성과공유 확산

대중기협력재단-KIAT, 업무협약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기협력재단)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중견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형 성과공유 확산을 위해 나섰다.

대중기협력재단은 KIAT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상생협력

형 기술혁신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 지원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대중기협력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성과공유제’와 KIAT가 운영 중인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상생협력형 기술혁신 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KIAT 사업에 선정된 중견·중소기업은 성과공유제에 참여해 과제수행으로 발생한 성과를 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KIAT 과제를 통해 발생한 기술개발 성과에 대해 중견기업(위탁기업)과 중소기업(수탁기업)이 현금 또는 물량·매출 확대 형태로 성과를 배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김승호 기자